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영유아 자녀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유보통합의 닻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추진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보통합은 “국가가 영유아들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가장 정확하고도 확실한 신호입니다. 영유아기 정책이 양질의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유아기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무엇보다도 영유아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의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유보통합은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켜주기 위한 통합이어야 합니다.

장애 영유아의 의무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고 놀이 환경을 개선하고 급간식비 등의 차이를 개선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사들의 노동 환경과 처우들을 개선하는 일들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 확보 방안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 뿐 아니라, 교육청과의 협의, 시도 지자체와 협의가 난항을 겪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교육부를 책임 부처로 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가 미래 세대를 차별 없이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것을 유보통합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관의 차이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지역에서든 어떤 기관에서든 영유아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유아 부모들은 국가가 유보통합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여야가 영유아 권익 중심으로 잘 협치하는지, 교육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중대한 과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와 국민들이 온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